



나는 빛진 자

오늘은 로마서 1:14의 말씀을 가지고 빛진 자에 대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14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로마서 1:15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에게도 빛을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8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져야 하는 사랑의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의 빛이며,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 부터 값없이 받은 구원의 빛입니다.

오늘은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으로 부터 ‘값없이 구원을 받은 받는 영적 빛’에 대해 공부를 해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값없이 받은 구원의 빛’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 값없이 받은 구원의 빛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면 왜 그것이 빛이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깊은 상호 교류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저는 이것을 저의 경험을 통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약 한달 전에 배가 몹시 아팠습니다. 클리닉에서 이것은 심상치않으니 Emergency room 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 집 사람이 시카고에서 레지던시를 하고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은 그 전화를 받고, 곧바로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플로리다로 달려 왔습니다. 이머전시로 비행기표를
사면 3-4 배가 비쌉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비용을 생각치 않고, 자기의 하루 하루 스케줄이 있을텐데,
그것을 다 뒤로 미루고, 어떻게 비행기 표를 구해 달려온 것입니다. 저는 병상에 누워서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의 얼굴에서 “부모가 이렇게 저를 키워 주었는데 이제 부모를 보살펴 드리는것은 내 차례가
아니냐”고 하는 마음을 읽고, 아들에게 깊은 신뢰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때 우리 아들의 그
마음이 부모에게 빛진 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부모로써 아무 댓가를 바람이 없이

사랑으로 키워 주었지만, 자식은 부모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부모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빛진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 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가져야 할 빛진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빛으로 느껴진다는 말은 ‘하나님과 깊은 상호 교류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값을 길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인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이 큰 은혜를 갚을 수 있을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큰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기꺼이 하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저는 이 마음을 빛진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것을 값없이 받아 놓고 “이것은 공짜로 준 것이니 내 것입니다” 하면서 돌아서는 사람은 감사의 마음도 없는 사람이고, 상호 교류를 할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같은 죄인을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갚으려 할 때 이 마음이 빛진자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의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마음을 기뻐하시고 기뻐하셔서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 저는 이 마음을 빛진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유없이 최고의 사도가 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빛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 아래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2. 빛진자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파의 의무 아래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해 빛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인지 모르지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의무를 느끼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

요한일서 2:2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1 John 2:2 (NKJV)

²And He Himself is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and not for ours only but also for the whole world.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한 이 말이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고 고백한 이 말에 의미라고 믿습니다.

이와같이 빛진 자의 마음을 가지라고 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가 뭐라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빛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빛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1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 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진 자의 마음은 자신이 갇아야 할 빛의 의무 아래 있는 것으로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때는 죄를 짓는 것으로 느끼게 되고, 갇아야 할 빛을 갇지 않은 고통 아래 놓이게 됩니다. 살기 위해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느끼는 빛진 자라는 감정은, 그런 양심의 고통이 수반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빛진 자로 느끼는 그의 감정입니다.

고린도전서 9:16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고린도전서 9 : 17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1 Corinthians 9:17 (NKJV)

¹⁷ For if I do this willingly, I have a reward; but if against my will, I have been entrusted with a stewardship.

전하지 않으면 마치 죄를 진것 같아 화가 임할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살기 위해선 하나님께 진 빛을
갚는 길로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저는 소명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빛을 진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가지는 복음 전파의 빛입니다.

그런데 오늘 날 이런 빛진 자의 감정이 없이 목사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일전에 고문 경관으로 이름난 L 씨에게 목사 안수를 준 교단에서 목사 안수 취소 검토라고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유신시절 고문 기술자라 불리던 사람이 감옥에서 전도를 받아 모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후에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인해 안수를 준 교단에서 목사 안수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읽니다. 기자가 잠적해 있던 L 씨를 찾아 인터뷰한 기사를 읽었는데 L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으면 목사가 되었겠느냐?”

목사는 회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강박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로서 L 씨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 직분을 이해하고 있는 L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목사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빛이 되 못하고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 주고 있는 이유가, 교회도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닌,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들 때문이 큼니다.

3. 빛진 자 갖추어야할 준비

로마서 1 : 15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Romans 1:15 (KJV)

¹⁵ So, as much as in me is, I am ready to preach the gospel to you that are at Rome also.

I am ready to preach the gospel to you that are at Rome also.

사도 바울의 이 구절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빛진 자다!

복음 전파를 할 준비가 되었다.!

구원으로 인해 빛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빛값을 준비를 합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구원 후의 소명과 전해야 할 내용에 있어서의 준비라고 하였습니다.

준비된 빛진 자는 전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강박하는 마음과, 점해야 할 내용이 확실히 준비된 사람을 말합니다. 말할 것이 업심 사도 바울은 이면에서 철저히 준비된 빛진 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준비가 안된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무익한 것 같지만 제가 들은 설교 한편을 간단히 소개하려 합니다.

“잔피 부리지 마라” 하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합이 여호사밧과 전쟁에 나갈 때 아합이 잔피를 부려 왕복을 벗어 버리고 병졸의 군복을 입고 출정했는데, 적군이 쏜 화살이 병졸의 군복을 관통하여 죽게 되었다며 잔피를 부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깊은 탄식이 흘러 나왔습니다.

오늘날 강단에 말씀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기갈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지도자가 많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문제를 모르는, 준비가 안된 지도자가 많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는 지난 주에 저의 카페의 가입신청을 하신 어떤 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분이 말하길,
진리는 바른데 왜 교회는 자꾸 힘을 잃어 갈까요?

또 다른 분은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불신자들보다도 신정통주의 신학자들과 실존주의 사상에 물들은 신학자나 목회자들에게 대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로서, 예수만이 오직 구원의 길임을 어떻게 다시 세워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자기의 고민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분이 나의 고민을 하고 계시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확신 위에, 정통신앙의 바탕 위에 교회가 새로 세워져야 합니다.

정통 신앙은 예수님, 사도바울, 성 어거스틴, 칼빈으로 이어지는 신앙입니다.

‘희망을 가져라 축복을 받아라, 희망-----축복----‘

인기를 위해 이런 것이 범람하고 있는 현재의 강단에서,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한 정통 신앙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이유가 제가 있는 이유이며, 바울 성서아카데미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저의 빛진 자의 심정입니다.

로마서 8 : 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2] Therefore, brethren, we are debtors, not to the flesh, to live after the flesh.